



# 부처 죽이고 나 죽이는 일

## 사형제 폐지...쟁점은?

사형제도, 사법적 살인인가 국가질서 유지를 위한 필요악인가? 최근 유럽회의 45개국이 사형제를 전면 폐지한다는 '유럽인권회의 13호 의정서'가 발효되면서, 사형제 폐지 찬반논쟁에 다시 불이 붙었다. 불교 천주교 개신교 원불교 등 7개 교단으로 구성된 '사형제도 폐지를 위한 범종교인연합(이하 범종교인연합)'은 8일 서울 조계사에서 '사형제 폐지 기도모임'을 갖고, 연말까지 기도모임을 소속 종단별로 매달 열겠다고 밝혔다. 또 범종교인연합은 앞서 지난 6월 25일과 26일 강급실 법무장관, 박관용 국회의장을 잇따라 만나, 사형제폐지특별법안의 9월 정국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등 대정부 압박 강도를 한층 높였다. 또한 '사형은 또 다른 살인행위'라고 주장해온 범종교인연합의 사형 폐지운동이 정점에 다다르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정부의 입장은 부정적이다. 국민의 법감정을 이유로 사형제 폐지에 난색을 보이고 있고, 국회도 법률안 심의조차 하지 않은 채 뒷짐만 지고 있다.

사형제 존폐 논쟁의 핵심과 불교 등 종교계가 폐지에 나선 이유, 그리고 불교적 해법과 현실적 대안은 없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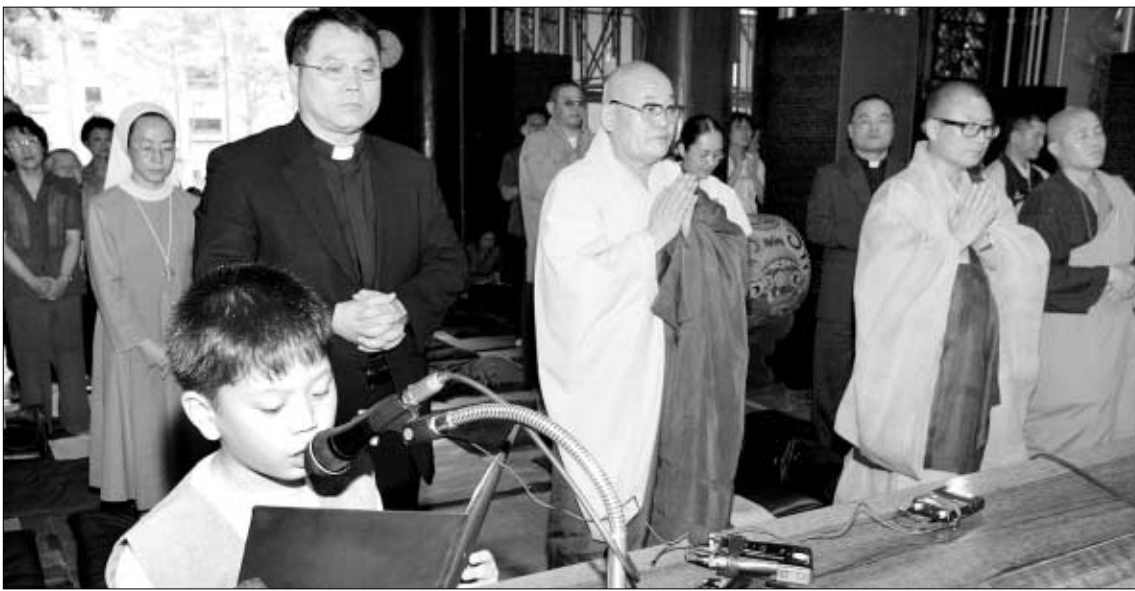
## 외국의 경우는...

국제사면위원회 한국지부에 따르면, 2003년 현재 156개국이 사형제도를 완전 폐지했다. 이는 지난 2002년 4월 기준 111개국에서 45개국 늘어난 수치로, 최근 사형제 전면 폐지를 밝힌 유럽회의의 45개국이 포함된 것이다. 또 튀니지와 터키 등 20개국은 최근 10년간 사형집행 사례가 없어 실질적 폐지국으로

## 156개국 사형 폐지...증가 추세

### 한·미·이란 등 상당수 아직 유지

분류되고 있으며, 아르헨티나와 브라질 등은 사형제가 존속하고 있지만 군법이나 전시에만 적용되는 부분적 폐지국이다. 지역적으로는 유럽과 중남미국가 대부분이 사형제를 없앴다. 반면 한국을 비롯한 중국, 이란, 미국 등의 아시아·중동·북미·아프리카 상당수는 사형제를 유지하고 있다.



◇불교 천주교 개신교 원불교 등 7개 교단 대표자들이 구성된 '사형제도 폐지를 위한 범종교인연합'은 8일 서울 조계사 대웅전에서 '사형제도 폐지 기도회(전도회)'를 열고 사형제 전면 폐지를 촉구했다. 사진=박재완 기자

## 불교계 “원한 맺는 악업 되풀이 될 뿐” 정부 “범죄 억제... 국민법감정 중시”

▼폐지운동, 어떻게 전개됐나= 사형제 폐지를 이끌고 있는 곳은 종교계다. 지난 2000년 출범한 '사형제 폐지를 위한 불교운동본부'를 비롯한 천주교, 개신교, 원불교, 천도교 등 7개 교단은 2001년 1월 '범종교인연합'을 결성해 사형제 폐지운동을 주도하고 있다. 이들 교단은 그간 사형제 폐지 서명운동, 심포지엄 개최, 포스터와 소책자 발간 등 대국민 홍보를 해왔고 2000년 7월에는 '사형제폐지특별법'의 입법을 이끌어내는 등 괄목할 성과를 보여 왔다.

불교계에서는 불교인권위(공동대표 진관·지연·한상범)가 3년여전부터 다른 종교단체와 연대해 활발한 활동을 펴왔다. 하지만 이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변한 것은 없다. 여전히 52명의 사형수는 형 집행을 기다리고 있고, 현행 국내 형법과 각종 특별법에는 총 103개 조항에 걸쳐 범형 최고형인 사형이 규정돼 있다. 또 폐지논란의 분수령을 이룬 지난 1996년에는 헌법재판소가 사형제 관련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합헌결정을 내림으로써 폐지운동에 찬물을 끼얹었다. 판결 요지는 생명에 해당하는 형벌이라도 다른 생명 또는 공공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불가피성이 충족된다는 것이었다. 정부와 국회는 사형제 폐지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표명을 피하고 있다.

▼존치와 폐지, 그 핵심 쟁점은?= '필요악'인가 '사법살인'인가. 논란의 핵심은 바로 여기에 있다. 이는 사형제가 국가질서 유지를 위해 '필요악'이라는 존치론자들의 주장과 사형은 '사법살인'이라는 폐지론자들의 입장충돌로 결국 법무·검찰 등의 정부와 종교계의 대립양상으로 치달게 한 원인으로 작용했다. 이처럼 사형제 존속여부를 놓고 극명한 입장차를 보이는 가운데, 정부는 우선 사형제의 범죄 억제 효과를 첫 번째 이유로 꼽고 있다. 정부는 최근 증가하고 있는 흉악범, 가정파괴범 등 강력범죄의 예방 효과에 사형제가 크게 기여한다고 주장한다. 또 '죄를 지은 만큼 벌을 받아야 한다'는 국민 법감정을 감안할 때 사형제 폐지는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다. 가정파괴범 등의 흉악범죄자에 대해서는 사형을 집행해야 한다는 게 일반 국민의 법감정이라는 것이다.

종교계는 정부의 이 같은 이유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고 있다. 사형제의 범죄예방 효과는 입증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지난 2002년 4월 국제사면위원회가 발표한 보고서에서 '사형제는 범죄발생률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며 '오히려 미국의 경우 사형집행 건수가 늘어나는 데도 살인사건 발생률은 증가한다'고 밝혔다. 특히 폐지론자들은, 사형제는 인간의 기본 권리가 가장 중요한 생명권을 빼앗는 반인간적인 제도라고 주장한다.

▼불교적 관점에서 본 '사형제' = 마땅히 폐지해야 한다는 것이 불교를 비롯한 종교계의 입장이다. 불교는 생명에 대한 자비를 으뜸 덕목으로 삼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람과 국가가 타인의 생명을 인위적으로 빼앗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고 있다.

경전에서 이 같은 불교의 입장을 확인할 수 있다. <법방경>에 '죽이는 인(因)과 죽이는 연(緣)과 죽이는 방법과 죽이는 업(業)으로 묶음 있는 것을 죽여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 있는가 하면 <숫타니파타>에는 '산 것을 몸소 죽여도, 남을 시켜 죽여도, 그리고 죽이는 것을 보고 묵인해서도 안 된다'고 설하고 있다. 이는 어떤 이유에서든 사람의 목숨을 인위적·제도적으로 끊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생명존중사상'을 천명한 것이다.

조계종 사형제도 폐지위원회 진관 스님(불교인권위원회 공동대표)은 "죄의 대가는 따로 치르게 하되 생명을 빼앗아서는 안 된다. 그것은 곧 부처를 죽이고 나를 죽이는 일"이며 "다시 원한을 맺는 악업의 윤회를 되풀이 할 뿐"이라며 사형제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불교인권위 02(7)34-6401

김철우 기자 in-gan@buddhapia.com

## NGO 활동가가 쓰는 현장칼럼

정유탁  
풍경소리 작곡가



## 함께하는 어린이법회

## 매년 새얼굴로 바뀌는 지도교사들 '씨앗' 가꿔 '숲' 이룰 방법 없을까

'아이들을 지도한다는 것' '아이들과 함께한다는 것!' 열핏 간단한 일쯤으로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언제 어디로 뭘 지 모르는 락비공처럼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그들의 생각과 행동. 더욱이 학과 공부가 아닌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해야 하는, 아직은 나름대로의 가치관이 확립되지 않은 우리네 어린 불자들을 지도하는 일... 글썽? 그리 쉬운 일이 아닌엔 누구나 공감할 수 있을 것 같다.

교사란 어쩌면 교육 이전에 그들의 동심을 지켜 주고, 또한 그들이 불성(佛性)을 개발해 나아가는 길목에서 그들을 받쳐 줄 수 있는 튼튼한 버팀목으로서의 역할이 더욱 중요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지금의 현실을 돌아보자면, 그 만큼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 우리네 교사들이 설만한 자리는 너무나도 좁다. 개인적으로 1992년에 조계사 어린이 법회를 시작으로 처음 선생님이라 칭호를 들었던 것 같다. 그 당시엔 정말 아무것도 몰랐던 것이 사실이다. "애가 애들을 가르치네"라는 말마따나 책임감이나 사명감 따윈 아랑곳없이 그저 '아이들이 좋아서'라는 생각만으로 지내왔다. 그때의 가득했던 열의만큼은 지금껏 나를 지탱하고 있는 뿌리가 되고 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종만 선생님을 만나면서 부끄럽지만 찬불동요 작곡자라는 이름으로 거듭났고, 98년부터는 여름·겨울 불교학교를 위한 지도자 연수회에서 '부처님 노래를 불러요'라는 주제로 찬불동요와 율동을 강의하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 그리고 올 여름도 어느 때와 마찬가지로 여러 곳에서 강습회와 연수회가 개최되고, 우리의 어린 불자들을 지도하는 교사들이 참석하여 교육을 받는다.

의형적으로 신심으로 가득한 수백 명의 지도자들이 모인 의미 있는 자리가 될 수도 있겠지만, 그 안의 실정은 그렇지 못한 것 같다. 난 그들에게 새로운 찬불동요와 율동을 전달하는 전달자이지만, 오로지 신심 하나로 "그냥 아이들이 좋아서요!" 라고 말씀하시던 선생님들이 매년 새로운 얼굴들로 교체되고 있는 현실에 나 또한 어린이 법회를 맡고 있는 교사로서 너무나 아쉬움을 따른다.

사실이 그렇다. 거듭 얘기 하지만 20대 초반에 맡고 그대로 "그냥 아이들이 좋아서" 라고 하기에 그만뒀는데 할애야 되는 시간과 그만큼에 포기해야 되는 자기관리 생활, 그리고 일이 년이 더 지나니 더욱 힘들어지는 생활과 자신의 미래에 대한 꿈, 과연 어떠한 방향으로 앞에 나설 것인지 해결 될 수 있을까? 몇몇 의식 있는 분들의 박수다. 하지만 무언가 좀 더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한 시기에는 틀림없다. 물론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어린 불자들을 위한 것'이라는 전제를 충족시키는 조건으로 말이다.

흔히들 2천만 불자라고 한다. 그렇다면 그 안에 어린 불자들의 수는 얼마나 될까? 2백만? 3백만? 어쩌면 우리는 그동안 숫자를 따지는 일에만 너무 익숙해져 있지 않았을까? 그렇다면 그 이전에 그들의 씨앗들을 어떻게 가꾸어야 할 것인가를 먼저 생각할 때가 아닐까? 세월이 흘러 그 씨앗이 자라서 '숲'을 이룰 수 있도록...

끝으로 현존하고 있는 많은 어린이 포교 단체들과 일선에서 어린이 포교에 앞장서고 계시는 모든 지도자 분들. 그 분들의 고군분투에 힘차고 따뜻한 박수를 보낸다.

## 각종 난치병, 신병 영험치유



부처님의 가피력으로  
중생의 고통을  
치유 합니다.

덕산스님(동행대승행성 연구학회 1기생)

지금의 우리는 죽은자와 산자의 영적 교감이 가장 왕성하게 일어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우리 주위에는 병명과 원인을 알 수 없는 영가 병으로 인해 고통 받는 사람들이 하루가 다르게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오직 부처님의 인연법에 의해서만이 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 해결 사례

- 30년 동안 앓아왔던 병(정신질환, 심장병, 신장병)이 한순간에 제형과 천도로 해결되었음.
- 25년 동안 몸 속을 돌아다니며 고통을 주는 조상 영가들이 제형 천도로 그 형세가 해결되었음.
- 간경화 말기의 환자 몸 속에 있는 조상 영가를 제형 천도하고 난 후 상태가 영적으로 호전되었음.
- 중추신경마비 증후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조상 영가를 제형 천도 후 병세가 눈에 띄게 호전되었음.

## 천도 및 제형 전문도량 혜광사

경기 안양시 동안구 호계 1동 986-9  
031-452-0586 / 011-781-0587

## 귀신은 속여도 사주팔자는 못 속인다.

스님, 법사님, 보살님 여러분!  
신도님들의 사주상담시에 <동신 잡는법>문제로 얼마나 골치가 아프십니까? 여기 여러분의 골칫거리를 말씀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줄 머리비결이 있습니다. 이를 습득하느라 많은 지식과 공부가 필요치 않습니다. 단지, 한글과 덧셈, 뺄셈, 곱셈만 알면 누구든 쉽고도 빠르게 동신을 찾을 수 있도록 본서는 명쾌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도 약간의 공부로 명리학의 대가 될 수 있음을 자신있게 알려 드립니다. 또한, 본서를 공부하면, 여러분들의 신도님들 인생상담은 물론, 불사를 일으키는데도 많은 도움이 될것을 확신합니다.

- 서적명 : 최신팔자명리학 비결
- 규격 : A-4 용지, 620 페이지
- 저자 : 오산 정대균
- 가격 : 220,000원
- 구입방법 : 하기 계좌로 입금하시고 전화를 주시면 택배로 우송함.
- 기타사항 : 본서내에는 <동신잡는법> 이외에 각종 최고수준의 사주분석 비결들이 담겨져 있음.
- 계좌번호 : 국민 765202-04-019996  
농협 170202-56-037616  
예금주 : 정대균

그외, 본서의 비결들을 단기간에 전부 습득하고자 하는 분들을 위하여 본연구소에서는 1개월 과정의 저자 직강의 강의를 8월 1일부터 실시합니다. 관심있는 분들은 수강신청 바랍니다.

www.sazoopalza.com

## 오산 팔자 심리학 연구소

서울시 대림 3동 779-15호 전화 : 02-831-0055(대표)  
H·P 011-208-0051 한글인터넷 주소 : "사주팔자닷컴"

## 수신토종오가피는



국내 최대 오가피 제재 성광수

### 기술이 다릅니다!

★과학기술부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저희 수신토종오가피는 한국생명공학연구원(국내 유일의 정부출연 바이오전문연구기관)과 함께 과학기술부 연구개발사업인 '자생식물이용기술개발사업'에 참여하여 우리나라 토종오가피에 대한 연구를 4년째 계속하고 있습니다.

### 믿을 수 있습니다!

★직접 재배한 원료만을 사용합니다.

오직 국내 최대 오가피 재배자인 성광수씨가 직접 재배한 오가피 원료만을 사용합니다. 20여년을 하루같이 자식을 키우는 부모의 심정으로 오가피를 키워온 성광수씨의 정성! 믿을 수 있는 수신토종오가피의 신념입니다.

### 감동이 있습니다!

★태극전사들과 함께 했습니다.

1년전 온국민이 대한민국을 외쳤습니다. 1년전 전세계가 대한민국에 감동했습니다. 월드컵 4강진화를 이룬후 우리 태극전사들이 먹은 오가피는 오직 수신토종오가피입니다.

- 감사의 마음으로 고객사운영사를 하고 있습니다. -

지금 전화주세요! (02)2201-3333